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2, Vol. 34, No. 4, 1229-1251
http://dx.doi.org/10.23844/kjcp.2022.11.34.4.1229

OPEN ACCESS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불안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엄 연 용
건양대학교 / 겸임교수

송 원 영†
건양대학교 / 교수

이 연구는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의 양육불안 경험에 대한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만 6세에서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와 모 13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Van Kaam의 심리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모양육불안은 부모, 자녀, 환경요인의 3개의 요인(Factors)에서 11개 범주, 33개의 하위범주, 105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첫째, 부모요인으로 “부모신념으로 인한 불안”, “부모의 예기불안”, “부모 역할에 대한 불안”, “부모의 지나친 책임감” 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요인으로 “자녀의 발달 및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기대감”, “자녀의 행동염려”,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걱정”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환경요인은 “경제적 부분에 대한 염려”, “지지체계로 인한 걱정”, “자녀 돌봄에 대한 걱정”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양육불안의 경험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향후 부모양육불안 연구 및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주요어 : 아동기 자녀, 부모양육불안, 질적 연구, 현상학, Van Kaam 분석법

---

* 이 연구는 엄연용(2022)의 건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국형 부모양육불안척도 개발 및 타당화’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송원영,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32992) 충청남도 논산시 대학로 121
Tel: 041-730-5414, E-mail:1058@paran.com

Copyright ©2022,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 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www.kci.go.kr

자녀양육은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오랜 시간 지속되지만 부모들의 자녀양육 경험은 자녀의 연령과 발달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아동이란 만 6세부터 만 12세로(아동돌봄 지원법, 2021) 교육기관에서 학업 및 학생역할을 수행한다. 아동기는 자녀가 가정에서 교육기관과 또래관계로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시기로 부모들에게는 새로운 부모역할이 가중된다(정옥분, 2018; Pass, Mastroyannopoulou, Coker, Murray & Dodd, 2017). 교육기관에서도 아동의 학교적응과 학업수행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신학기가 되면 부모들은 걱정이 증가하고 이러한 아동기 양육 특성으로 부모들은 양육불안을 경험한다(신수희, 2019; 이정윤, 이경아, 2004). 학교폭력의 증가 역시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불안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피해응답률이 가장 높았고(초등학교 19,200명, 중학교 5,800명, 고등학교 1,800명) 학교 내외 안전사고는 2016년에 비해 11만 4,260건으로 6.1% 증가하였다(유용흠, 표석환, 김지아, 유인지, 이호용, 2021).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자녀 한 명당 필요한 양육비용은 월평균 약 73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제적 자녀양육곤란은 11.3%,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은 40.2%으로 나타났다(이소영 외, 2018).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으로 인하여 자녀 돌봄을 걱정한 부모는 68.6%로 나타났으며 자녀 돌봄 문제로 이직 또는 퇴사를 고려한 부모의 비율도 75.3%로 높게 나타났다(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21). 이처럼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은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양육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부모양육불안이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양육 상황과 양육관련 요인들을 (부모, 자녀, 환경) 위협적으로 인지함으로써 경험하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이다(Hiroki, John, Shiyu, Nao & Seiichi, 2012; Tsukiko & Tanji, 2004; Yoshida et al., 1998). 먼저 양육 측면에서 살펴보면, 양육(child-rearing)이란 아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를 보살피는 것으로 부모에게 역할과 책임이 요구된다. 양육과정모델에 따르면 양육경험은 부모, 자녀, 환경적 영향을 받는다(Belsky, 1984). 부모의 성장과정 경험에서 형성된 부모성격은 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동특성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부관계, 사회적인 네트워크, 직업은 부모성격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직, 간접적으로 양육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양육경험은 양육결정모델을 통해서도 다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Chase-Lansdale & Pittman, 2002). 한편, 불안 경험 측면에서 살펴보면 불안은 위험자극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이다(Clark & Beck, 2010). 불안인지모델에 따르면 신념, 규칙 및 가정을 포함하는 인지도식은 신경과민, 긴장, 초조, 등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며 위험적인 상황에서 피하려는 강한 행동 활성화를 촉진한다(Clark & Beck, 2010).

선행연구에 따르면 양육불안이 높을수록 부모는 우울에 취약했으며, 분노가 높고 삶의 질이 감소하였다(정계숙, 2019; Hiroki et al., 2012; Mishina, Takayama, Aizawa, Tsuchida & Sugama, 2012). 특히, 부모역할에 대한 지나친 걱정, 불안, 두려움은 양육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신체적, 심리적 탈진(burnout) 상태를 일컫는 부모소진을 야기하였다(Mikolajczak, Raes, Avalosse & Roskam, 2018; Mousavi, 2020). 아동기 전환 시기에는 학부모

www.kci.go.kr

역할의 과부하가 삶의 불균형을 초래함에 따라 부모들은 양육에 대한 걱정, 불안, 두려움을 경험하였다(Mishina et al., 2012; Pass et al., 2017). 양육불안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의 지나친 걱정은 자녀의 행동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역기능적 양육행동을 유발하였고 자녀에 대한 간섭과 지시, 처벌, 과보호를 야기하였다(정계숙, 2019; Eri, Toshiyuki, Yuka & Zentaro, 2019; Nejra, Maria & Kari, 2018). 부모의 양육불안이 높을수록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자녀에게 더 많이 전달하였고 자녀의 일상적 스트레스, 우울, 불안, 정서지능, 적응 및 또래관계, 사회불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엄연용, 송원영, 2021; 정세진, 신나리, 2018; Gar & Hudson, 2009; Nejra et al., 2018; Stassart, Dardenne & Etienne, 2017). 마지막으로 문화에 따른 양육불안을 살펴보면 한국 어머니들은 과도한 책임감으로 인한 양육불안이 가장 높았고 일본 어머니나 대만 어머니들보다 양육불안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비슷한 양육 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다(공병호, 백승학, 2017; 최경희, 2001; 최순자, 深谷昌志, 이광형, 2006).

중요한 점은 양육불안이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다르게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부모와 자녀를 독립된 대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양육불안은 부모 개인의 스트레스 취약성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다(Abidin, 1992; Roskam et al., 2021). 반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부모와 자녀를 강한 결속력을 가진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지나치게 밀착된 부모-자녀 관계에서 경험하는 양육불안이 연구되어왔다(Makino, 1982; Yoshida et al., 1998). 일본에서는 Makino(1982)의 연구를 기점으로 양육불안의 위험성을 주목하였고 자녀 양육과 관련된 신경증적인 불안감을 지칭하는 육아노이로제(いくじノイローゼ), 양육불안(ikuji-fuan)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었다(Eri et al., 2019). 국내의 경우도 가족집단주의 문화로 부모와 자녀 간에 심정 결속을 통해 융합되어 있는 동일시 특성이 보편화 되어 있으며 특히, 자녀 교육과 양육에 대한 책임감이 매우 높은 특성이 있다(권용은, 김의철, 2004; 최상진, 2011). 그러나 국내의 양육불안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나 어머니로 제한적인 연구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양육불안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김선미, 김정민, 2020; 엄연용, 송원영, 2021). 때문에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국 부모들의 양육불안 경험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상학은 어떤 상황에 처한 인간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밝히는 철학 사조로 현상의 근본적 성질을 탐구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체험의 의미, 구조, 본질에서 보편적 요소와 본질적 구조를 파악한다(김영천, 2012). Van Kaam의 심리현상학적 분석방법(Psycho-Phenomenological Method: PPM)이란 경험을 공유하는 다른 개인들도 상황적 맥락 안에서 본질은 같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경험의 의미를 찾으며 정확하고 엄격한 방법을 적용하는 귀납적 분석방법이다. 확인된 본질적 구조적 요소 또는 경험의 주제는 충분한 것으로 간주되고 각 구조적 요소는 경험내용에 의해서 명확히 표현되며 전체와 호환된다(Anderson & Eppard, 1998). PPM은 분석, 해석, 변형, 현상학적 반영의 통합적인 4과정으로 세부적인 12단계를 포함한다. 진술문의 빈도를 측정함으로써 양적 특성을 가지며 참여자 표현 그대로가 아니라 문헌을 토대

www.kci.go.kr

로 학문적 언어로 반영하여 통합한다는 점에서 질적 연구를 보완한 방법이다.

종합하면, 부모들은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양육불안을 경험하고 있으며 영유아기 자녀와는 다른 부모, 자녀, 환경적, 문화적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 양적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들은 부모양육불안이 부모의 정신건강 및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부모들의 걱정과 불안을 감소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문화를 반영한 부모양육불안 경험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며 특히,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의 양육불안 질적 연구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an Kaam의 PPM 분석방법을 통해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양육불안의 경험에 대한 의미와 본질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 부모들이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모양육불안은 무엇인가?”

방 법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만 6세에서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부 5쌍과 부 2명, 모 1명, 총 13명으로 부는 7명(53.8%), 모는 6명(46.2%) 이었고 연령은 30대가 4명(30.8%), 40대가 9명(69.2%)이었다. 기본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참여자의 특성

참여자		연령	학력	직업	맞벌이	지역	자녀학년	자녀수
1	부	43세	고졸	회사원	외벌이	경기도	초1,초 6	4명
2	모	42세	전문대졸	전업주부	외벌이	경기도	초1,초 6	4명
3	부	41세	대졸	회사원	맞벌이	충청도	초 6	2명
4	모	41세	고졸	회사원	맞벌이	충청도	초 6	2명
5	부	41세	대졸	자영업	외벌이	충청도	초 6	2명
6	모	40세	대졸	전업주부	외벌이	충청도	초 6	2명
7	모	43세	대졸	회사원	맞벌이	충청도	초3, 초5	2명
8	부	39세	대학원	전문직	외벌이	충청도	초1, 초1	2명
9	부	42세	대졸	회사원	맞벌이	충청도	초 2	2명
10	부	36세	대학원	회사원	맞벌이	충청도	초 1	2명
11	모	34세	대졸	회사원	맞벌이	충청도	초 1	2명
12	부	40세	대졸	전문직	맞벌이	충청도	초 1	2명
13	모	38세	대졸	전문직	맞벌이	충청도	초 1	2명

www.kci.go.kr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참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 안내를 통해 참여에 동의한 참여자만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면담시간, 내용, 방법(녹음) 등 자료수집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면담 시작 전 각각의 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하여 한 번 더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에 진행하였다. 녹음된 내용은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과 익명성 보장, 면담 동안 참여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따르지 않으며, 연구 참여도중 언제라도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및 절차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심의 후 진행하였다(KYU-2020-118-01). 온라인 지역 카페 게시판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5쌍의 부부와 부부 중 한 명만 참여한 부 2명, 모 1명이 면담에 임하였다. 심층면담이 시작되기 전 사전에 문항을 전달하여 참여자의 이해와 부담감을 최소화하였으며 참여자가 주제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 및 인구통계학적 질문은 면담 시작 전에 진행하였다. 면담이 끝난 후 연구에 참여한 개인에게 3만원의 상품권, 부부에게는 5만원의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면담 시간은 최소 30분에서 최대 60분이었으며 면담 내용은 음성파일로 녹취한 후 연구자가 직접 전사하였다. 질문 문항은 표 2와 같다.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Van Kaam의 PPM 과정을 따랐으며 한글과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과정에서 연구자의 상식과 선이해가 현상 본질의 이해를 막지 않기 위해 연구자의 생각을 괄호 치기(bracketing)하였고 수평화 작업(horizonalizing)으로 괄호 치기 과정을 통해 얻어진 개념에 동일한 중요성을 부여하였다(김영천, 2006;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2). 분석 과정은 표 3과 같다. 첫째, 각 참여자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녹음파

표 2. 면담 질문

· 양육불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 양육불안의 뜻을 듣고 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 귀하가 생각하시는 부모의 양육불안은 무엇입니까?
· 최근에 경험했던 양육불안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 양육불안의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됩니까?
· 양육불안이 어떻게 느껴지시던가요?
· 방금 말씀하신 양육불안을 느낀 후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 양육불안에 대한 어떤 행동방법이 효율적/비효율적이었습니까?
·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다르다고 생각하나요?
· 만약 있다면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www.kci.go.kr

표 3. Van Kaam의 현상학적 분석 단계

분석 단계(analysis)	
1단계:	대상자 말을 기술함. 전체에 초점을 두며 일반적인 경험의 인상을 얻기 위해 분리해서 읽음
2단계:	서술을 다시 읽으면서 일차적 구조적 요소의 차별화에 초점을 둠(일차 그룹핑)
3단계:	각 범주의 목록에서 반복되는 진술 제거, 수치 발생빈도 기록
4단계:	각 범주의 목록을 검토, 과정 서술의 잠재적인 구조적 요소로 점검.
5단계:	양립할 수 있는 것, 양립할 수 없는 진술들을 원래의 실제적인 표현으로 나열함.
6단계:	공동형성요소를 결정하기 위해 전체와 함께 작업하는지 확인, 필사록 검토
7단계:	구조적 요소들의 본질성과 양립성을 고려하면서 구조적 요소들에 대해 영역을 좁혀나감.
8단계:	각 요소는 확인된 요소가 핵심인지 결정하기 위해 대상자의 언어로 비교되고 검토함.
해석단계(translation)	
9단계:	대상자의 말이 학문적 언어로 해석함. 서술해온 요소들이 학문적 언어로 변화됨.
변형단계(transpositon)	
10단계:	일차 결과물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단계. 본질적, 구조적 요소들은 전문 상담가에 의해 검토됨
현상학적 반영단계(phenomenological reflection)	
11단계:	본질적 구조적 요소들이 간결하게 정의됨. 임상전문가들에게 결과를 제출, 확인받기가 권고함.
12단계:	명확히 기술하면서 현상학적 반영을 함

일을 청취하면서 면담자료를 축어록으로 전사하였다. 반복하여 읽으면서 의미 있는 구나 절에 형광색으로 표시하며 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양육불안경험에 대한 생각, 느낌, 행동에 관한 내용들을 다시 주의 깊게 읽으면서 의미 있는 표현들을 분류하고 관련 없는 내용들은 제거하였다. 셋째, 중복 내용을 제거하고, 의미 있는 최종 진술을 선별하였다. 이 과정에서도 여러 번 원자료로 돌아가 의미를 확인하였으며, 발생빈도를 기록하였다. 넷째, 일차 범주화한 것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같은 속성으로 묶어 범주화하였다. 다섯째, 각각의 범주화된 목록은 잠재적 구조적 요소인 주제의 구성요소로 분류하였다. 이는 아동상담 수퍼바이저 1명과 임상심리전문가에 의해 검토되었다. 여섯째, 잠재적으로 타당한 공동형성의 요소를 결정하기 위해서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에서부터 도출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 번 필사본을 검토하였다. 일곱째, 잠재적인 구조적 요소들을 가지고 부모양육불안에 대한 과정의 임시 서술이나 정의를 만들었다. 여덟째, 확인된 요소가 부모양육불안 경험의 핵심인지를 검토하고 상황적 반영을 확인하였다. 해석단계에서 참여자의 표현을 학문적 언어로 바꾸었다. 변형단계에서 결과물의 충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질적 구조적 요소는 연구자에 의해 변형되었다. 현상학적 반영단계에서 본질적 구조적 요소는 간결하게 정의하였고, 연구의 결과물은 임상심리전문가가 검토

www.kci.go.kr

및 확인하였다. 마지막 12단계에서 명확히 기술하고 현상학적 반영을 하였다.

연구의 타당성 검증

연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Guba와 Lincoln가 제안한 신뢰성, 적합성, 감사 가능성, 객관성, 평가지표를 적용하였다(유기웅 외, 2012). 신뢰성은 질적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와 해석이 신뢰할 수 있는지 엄밀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양적 연구의 내적 타당도에 해당하며 참여자 확인을 적용하였다(김영천, 2012). 분석자료 및 결과자료가 적합한지를 점검하기 위해 면담에 참여한 부모 6명(남4, 여2)에게 5점 척도로 실시하였고 부모요인 평균 3.42점, 자녀요인 평균 3.06점, 환경요인 3.29점, 총 평균 3.26점으로 평가되었다. 적용 가능성은 연구의 결과가 일반화 될 수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양적 연구에서의 '외적 타당도'에 해당한다(유기웅 외, 2012). 본 연구에서는 임상심리전문가와 아동상담 수퍼바이저에게 연구 분석 자료와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를 받았다. 그리고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부모 7명(남2, 여5)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가 자신들의 경험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5점 척도로 실시하였고, 부모요인 평균 3.59점, 자녀요인 평균 3.12점, 환경요인 3.15점, 총 평균 3.28점으로 평가되었다. 감사 가능성은 질적 연구의 일관성과 관련된 엄밀성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적 연구의 신뢰도에 해당한다(유기웅 외, 2012).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 13명의 설문지, 녹음파일, 축어록 등의 원자료와 분석자료를 정리하였고 연구 자료의 정확성과 연구 절차의 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마지막으로 객관성은 신뢰성, 적합성, 감사 가능성이 확립될 때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로 양적 연구의 객관성에 해당하며, 확증성을 통해 연구의 자료와 해석이 현상적 사실임을 밝히는 것이다(김영천, 2012). 본 연구에서는 사실적 가치, 적용성, 감사 가능성이 검증되었으므로 확증성이 확립되었다.

결 과

부모양육불안의 경험과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와 모 13명을 심층 면담하여 분석한 결과 247개의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였다. 진술을 토대로 부모요인, 자녀요인, 환경요인, 3개의 요인에서 11개의 범주와 33개의 하위범주를 도출하였고 105개의 주제로 분류되었다. 첫째, 부모요인은 "부모신념으로 인한 불안", "부모의 예기불안", "부모 역할에 대한 불안", "부모의 지나친 책임감" 이었다. 둘째, 자녀요인은 "자녀의 발달 및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기대감", "자녀의 행동 염려",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걱정" 이었다. 셋째, 환경요인은 "경제적 부분에 대한 염려", "지지체계로 인한 걱정", "자녀 돌봄에 대한 걱정" 이었다(표 4).

부모요인

부모신념으로 인한 불안

융합-동일시. 부모의 원 가족으로부터 경험되었던 하나의 양육방식으로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도 융합-동일시로 인한 양육불안을 경험하고 있었다.

"아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어

www.kci.go.kr

표 4. 부모양육불안 범주와 하위범주

요인	범주	하위범주	횟수
1. 부모요인	1) 부모신념으로 인한 불안	(1) 융합-동일시	3
		(2) 자녀걱정에 대한 당위성	18
		(3) 이상적인 부모신념	7
	2) 부모의 예기불안	(1) 막연한 걱정	9
		(2) 불안전성에 대한 염려	9
	3) 부모 역할에 대한 불안	(1) 부모 역할에 대한 수행불안	13
		(2) 양육부담감으로 인한 걱정	6
		(3) 유능감 부족으로 인한 걱정	10
		(4) 비난에 대한 두려움	2
	4) 부모의 지나친 책임감	(1) 자녀를 엄격히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	3
		(2) 자녀에 대한 책임감	15
		(3)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집념	5
		(4) 훈육에 대한 염려	4
2. 자녀요인	1) 자녀의 발달 및 건강에 대한 염려	(1) 자녀의 발달에 대한 걱정	6
		(2) 자녀의 성장이 늦을까봐 걱정	3
		(3) 자녀의 건강걱정	15
	2) 자녀에 대한 기대감	(1) 학업에 대한 걱정	17
		(2) 자녀 미래에 대한 염려	11
		(3) 자녀에 대한 기대불안	10
		(4) 자녀에 대한 기대가 불일치 할 때	10
		(5) 또래비교	2
	3) 자녀의 행동 염려	(1) 자녀 행동에 대한 염려	7
		(2) 타인의 평가에 대한 걱정	4
		(3) 인성에 대한 걱정	9
		(4) 교육기관 적응과 관련된 걱정	11
		(5) 또래관계에 대한 걱정	11
	4)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걱정	(1) 자녀와 상호작용에서 경험하는 염려	6
3. 환경요인	1) 경제적 부분에 대한 염려	(1) 소득과 지출에 대한 걱정	5
	2) 지지체계로 인한 걱정	(1) 양육지식 및 정보 부족으로 인한 염려	5
		(2) 양육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 부족	2
		(3) 자녀 양육에 대한 배우자와의 갈등	3
	3) 자녀 돌봄에 대한 걱정	(1) 돌봄 공백	3
		(2) 돌봄에 대한 신뢰부족	1

www.kci.go.kr

렸을 때 다치면 부모님이 그 애정이 없으셔서 그런 건 아닌데 화를 엄청 내셨어요. 그게 물론 자식에 대한 사랑이고 관심이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마음 그 부분이 내가 다치면 부모님이 화를 내시는 구나 그런 게 각인이 되어 있었는데", "저는 그런 것 보다는 안전에 대한 주의를 주고 그럼 다치지 않는 부모님이 더 마음이 아프다는 그런 얘기를 항상 하죠. 본인이 아픈 게 아니고 부모가 더 아프다."(참여자 1)

자녀 걱정에 대한 당위성. 한국 부모에게 부모다움은 자녀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희생적 이미지와 헌신적 사랑에 대한 행위성을 자녀걱정으로 환원시켜온 한국 문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했던 일들이 양육불안 이구나란 생각이 들어요. 걱정과 불안이",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자녀가 어렸을 때나 컸을 때나 항상 걱정이고 죽어서도 자식 걱정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이 공감이 되요."(참여자 7), "아이를 키우면서 당연하게 고민 돼야 되는 일반적인 걱정들인데", "아이를 키우면서 누구든지 걱정이나 이런 걸 할 텐데 고민을 할 거고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들이 모두 다 일 것 같아요."(참여자 11)

이상적인 부모신념. 부모들은 막연히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며 이상적인 부모 기준에서 비롯된 걱정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게 처음에는 내가 좋은 부모인가 나쁜 부모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고 나는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하나? 나는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가?"(참여자 2), "아이들에게 저희가 뭐 좋은 부모인가? 좋은 부모로써 잘 하고 있나? 그런 걱정이 들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잘 키워야겠다는 마음은 큰데."(참여자 4)

부모의 예기불안

막연한 걱정. 부모들은 실제 일어나지 않은 양육 상황과 자녀 양육에 대해 막연히 걱정하고 있었다.

"이런 걱정이 사실 든다는 거는 아무래도 근본적인 원인은 성격이 있겠죠.(중략) 그리고 저는 걱정이 좀 많은 성격이기 때문에 불안한 면도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일을 걱정 할 때는 조금 마음이 불안하고 심란하고 그렇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은데, 엄마 아빠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참여자 11), "아이가 잘 따라온다 하더라도 항상 내적 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잘 살 수 있을까? 자녀에 대한 걱정, 불안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참여자 7)

불안전성에 대한 염려. 부모들은 자신의 불안으로 인하여 동일한 상황에도 위협적으로 경험하였고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불안정성에 대한 지나친 염려를 경험하고 있었다.

www.kci.go.kr

"저는 요즘 시대가 조금 많이 조금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요소들이 걱정되죠." (참여자 10), 저는 범죄 같은 것이 가장 걱정이거든요. 첫째 아이는 여자 아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흉흉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방비 적으로 유괴나 납치도 약간 성적으로 조금 여자가 살아가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사건사고가 많잖아요. 그런 문제가 사실 가장 걱정이 되죠."(참여자 11), "신랑은 왜 도마를 거기다 두느냐? 지나가다 애들이 잘못 건드려서 칼이라도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주위 환경만큼은 내가 다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게 부모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참여자 2)

부모역할에 대한 불안

부모 역할에 대한 수행불안. 부모들은 부모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부모 역할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었다.

"잘 키우고 있나 아니면 똑바른 길로 가고 있나.", "우리 애들을 잘 이끌고 가고 있는지 이게 올바로 가고 있는지. 이거를 그 앞선 부모랑은 좀 가는 방향이 틀리잖아요.(중략) 내가 어떻게 잘 가고 애들을 잘 케어 하고 있는지 이게 좀 걱정이구요."(참여자 5), "또 부모로써 부족하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커가면서 좋은 양육을 하고 있는지, 아이가 양육에 맞게 따라 오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있고."(참여자 4)

양육부담감으로 인한 걱정. 부모들은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면서 아동 돌봄 및 가사노동을 포함한 수많은 일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수면부족, 휴식시간의 부족으로 신체적 부담감과 정서적 부담으로 인한 걱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저희가 아이가 둘이다 다 보니까 유치원과 학교로 나누어지는 데(중략), 거기에 따르는 걱정이 많아요.", "더불어서 엄마 아빠가 아이 둘을 각각 출근하기 전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시간 내에 잘 해결하고 또 아이들을 제시간에 데리고 오고 이런 걱정이 가장 크거든요"(참여자 11), "저희 같은 경우는 둘 다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중략) 둘 다 일을 하게 되니 둘 다 피곤하니까 걱정이 되죠"(참여자 10), "이제 저희도 너무 육아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둘만의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좀 힘든 부분이 있죠.", "너무 아이들 위주로 생활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주말에 여행 가는 것도 가 본 적이 없어서"(참여자 2)

유능감 부족으로 인한 걱정. 부모들은 특정 '능력'이나 수행할 수 있는 '활동'에 한정하지 않고 부모 역할 전반에서 유능감 부족으로 인한 걱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음 근본적으로 지금 아이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무지하다는 거", "일단 나도 살아 왔지만 아이를 처음 키워 보기 때문에(중략)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참여자 12), "저는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양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

www.kci.go.kr

는 거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원인 같아요.”(참여자 2), “부모 역할을 처음 접하고”, “다 해주지 못할 때 아쉬움이 있고 자책이 되는 것 같아요”(참여자 7)

비난에 대한 두려움. 부모들은 자식의 잘못을 부모의 잘못으로 여기는 편향된 인식과 자식을 올바르게 기르지 못하는 부모라는 부정적 평가, 부모의 탓으로 돌리는 사회적 관습을 경험하고 있었다.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선생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자녀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하는 것을 듣는 게 저는 조금 두렵다고 해야 할까”, “혹시 안 좋은 이야기를 할까봐 부족한 부모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불편하고 피하는 편이죠.”(참여자 9)

부모의 지나친 책임감

자녀를 엄격히 통제해야 된다는 생각. 자녀를 바르게 키워야 한다는 명제에 가려진 양육불안으로 자녀를 엄격하게 통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었다.

“어 만약에 계속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를 요새 코로나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잖아요?(중략) 엄마랑 약속을 했는데 왜 그걸 안 지키지 그러면서 이제 혼을 내면 딱 정신을 차려 핸드폰을 접거든요. 그래서 따끔하게 혼내고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이제 가르쳐야 될 부분이 서로 간에 살짝은 스트레스가 오지만 아이도 알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부모가 통제를 해야 되죠.”(참여자 2)

자녀에 대한 책임감. 한국의 전통적 가족주의 맥락에서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지나친 책임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알아보고 현재 시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7), “(배우자 반대에도) 저는 애들이 이제 도움을 원하면 제가 도와서 애들이 빠르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애들도 어느 정도 그 도움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 같아서요.”(참여자 4)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집념. 부모들은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부모가 해결해야 한다고 경험하고 있었다.

“잠이 안 오고 걱정이 되서 아이에게 수시로 노출을 시켜주는데 어디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머리에 인식을 시켜야 된다고 해야 하나 계속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 준 것 같아요. 제가 불안함을 느껴서.”(참여자 10), “음 잘 무지하니깐 걱정 아이에 대한 걱정 같은 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나 자신에 대해서 이젠 화가 나는 경우도 있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거를 해소 하려고 검색하죠.”(참여자 12), “저도 아까 엄마와 마찬가지로 핸드폰을 너무 자주 보다 보니까 잔소리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생략) 부모가 이런 상황을 해결해야 되

www.kci.go.kr

는데 이제 해결방안이 없다보니까 큰소리로 또."(참여자 1 & 참여자 2)

훈육에 대한 염려. 부모들이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경험했던 훈육방식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훈육방식 사이에서 혼란과 걱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상황 관련된 거는 아이들이 뭐 싸우거나 이제 둘이 서로 하겠다고 할 때 이제 부모 입장에서 누가 옳은지 뭐 이런 거 음 이렇게 훈육을 할 때도 누가 옳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중략) 훈육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참여자 13), "진짜 훈육이거든요. 잔소리, 훈육, 이런 거를 딱 들어왔을 때 첫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입을 닫아버리고 이게 있어요. 근데 아직 막내나 지금 초등학생인 셋째는 아무리 비효율적인 방법이여도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효율적이어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비효율적이어도 훈육을 하죠."(참여자 2)

자녀요인

자녀의 발달 및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의 발달에 대한 걱정. 부모들은 자녀가 건강하게 발달하기를 바라는 바람과 염려가 있었다.

"뭐 이제 예를 들면 둘째 같은 경우에는 뭐 무릎 이런 그쪽 약간 이렇게 붙는 느낌이 드는데 검진 같은 거 하면은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약간 성장과정에서 과정 중에 있는 건데, 이게 잘 자라서 이상 없이 잘 자랄 수 있는지 이런 건데, 걱정이 되요."(참여자 13), "이제 막내. 이제 아토피를 애가 너무 심해서 죄책감이 있었어요.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죠."(참여자 2)

자녀의 성장이 늦을까봐 걱정. 자녀가 또래에 비해 성장이 늦지 않은지에 대한 염려도 있었다.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어 원래 늦은 아이도, 늦을 수도 있어 그냥 기다리다보면 당연히 해결될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애가 병이 아닐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심지어는 MRI도 찍었었거든요."(참여자 11), "지금 자라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건지 앞으로도 커가면서도 그런 게 좀 더 연장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요."(참여자 12)

자녀의 건강걱정. 부모들은 현재 자녀의 건강 여부와 상관없이 걱정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었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길 바라는데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자녀에 대한 걱정, 불안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참여자 7), "건강해지기만 이런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서 양육과 관련된 불안은 저희는 항상 건강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신랑은 애들이 조금 다치는 거 봐도 되게 예민하거든요. 이럴 때 헬멧을 써야지, 안전 보호대를 써야지

www.kci.go.kr

이런 애기를 항상 하거든요."(참여자 2)

자녀에 대한 기대감

학업에 대한 걱정.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들은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학업경쟁을 체감하고 있었고 자녀의 학업성과나 학습능력을 걱정하였다.

"얼마 전에 시험을 봤는데 제대로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앞으로 진학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지금 제일 하고 있는 거거든요."(참여자 2), "진학으로 인해서 이제 어느 뭐 말 그대로 학교를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아이한테 좋은지 그것 때문에 조금 걱정이 있었었죠.", "아무래도 성적 이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고요."(참여자 5)

자녀 미래에 대한 염려. 부모들은 현재 당면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녀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경험하고 있었다.

"좋은 직업과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그건 너무 앞서가긴 하는 데 그런 것들이 아마 양육 불안에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주관적 생각이 있죠.", "부모는 뭐 걱정은 진짜 끝이 없는 거 같아요. 뭐 자식이 출가 할 때까지는 자식 걱정은 끝이 없는 거 같아요."(참여자 1), "내 자녀가 스스로 결정하고 생활함에 있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되었으면 하는 걱정과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하는 걱정", "자녀가 어렸을 때나 컸을 때나 항상 걱정이고 죽어서도 자식 걱정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이 공감이 돼요.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막연하게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참여자 7)

자녀에 대한 기대불안. 부모들은 자녀의 신체, 인지, 지적 능력, 일상생활습관, 사회영역에서 자녀에 대한 기대감으로 불안을 경험하고 있었다.

"음 아무래도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많이 기대가, 아무래도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서 염려가 되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사회생활을 잘 하기 위한 기대감이죠.", "성적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기대가 큰 거겠죠."(참여자 5)

자녀에 대한 기대가 불일치 할 때.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나 이러한 기대감이 불일치하는 경험으로 양육불안을 경험하였다.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뭐 속상 했던 것 도 같아요. 건강 문제나 학업능력 인성이라든가 부모 마음이 올바르게 크고 공부도 좀 잘 했으면 하고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내 마음 같지 되지 않잖아요?"(참여자 1), "아이가 잘 따라오지 못할 때의 불안감이지 싶어요."(참여자 7), "기대에 못 미치면 걱정도 되고 짜증도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참여자 8)

또래비교. 부모들은 자녀가 자녀 또래와 비교 될 때, 또는 비교될까봐 염려하고 있었다.

www.kci.go.kr

"내 자녀가 누구에게나 칭찬받고 그러길 바라죠.", "또래하고 비교가 될 때 우리아이가 늦다고 생각이 되거나 또래 보다 못하거나 그런 부분을 걱정해요."(참여자 7)

자녀의 행동 염려

자녀 행동에 대한 염려. 아동기는 자녀가 스스로 수행하는 활동이 많아지는 반면,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발달적 과도기로 인하여 부모들은 자녀의 행동에 대한 염려를 경험하고 있었다.

"선천적인지 몰라도 민감도 하고 타인, 처음 보는 애들이나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과민, 조금 불안하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키워오면서 보니깐 그런 것들 때문에 불안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참여자 10), "저희 아이가 굉장히 예민하고 낯을 많이 가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 들어가면서 겪게 되는 적응 행동이 걱정되고", "아이가 예민하고 뭔가 겁이 많고 낯을 많이 가리고 그것도 걱정 되요."(참여자 11), "애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나쁜 길로 가고 있진 않는지? 걱정 되죠."(참여자 4)

타인의 평가에 대한 걱정. 부모들은 자녀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거나 선생님께 부정적 평가를 받거나 학교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을까봐 자녀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걱정하였다.

"저는 다른 아이와 비교될 때도 걱정되지만 자녀행동이 조금 또래 보다 늦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 부족하다는 말을 들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아요."(참여자 7), "이제 여자아이인데 외모에 대한 여자라면 아무래도 좀 가꾼 다기 보단 또 너무 극성스럽게 하는 것도 걱정이긴 한데 너무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런 걱정이 있죠."(참여자 1)

인성에 대한 걱정. 한국사회에서 중요시되는 바른 인성 프레임으로 부모들은 자녀의 인성과 관련하여 걱정하고 있었다.

"인성, 아이들의 인성이 잘 커 가는지, 그 나이 때에 맞게 아이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이끌어 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나이 때에 맞게", "인성이 아직 다 안 아물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인성이 좀 튀지 아닐지 뭐 이런 게 좀 걱정이죠."(참여자 3), "아이가 또 좋은 인성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도 있는 거 같아요.", "저는 아이들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질까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랄까봐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인성에 대한 걱정이고요.", "그리고 또 인성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나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6)

교육기관 적응과 관련된 걱정. 부모들은 자녀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염려를 경험하고 있었다.

"아직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올라가니깐 중학교 적응에 대한 그런 걱정? 넷째도 그렇고 이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www.kci.go.kr

올라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학교 적응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전반적이지 않을까요. 선생님하고 관계도 걱정되고"(참여자 1), "자녀들이 바르게 학교생활 했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램이고요. 요즈음 코로나다 뭐다 해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두 번씩 학교를 가니까 그런 걱정."(참여자 5), "조금 적응이 적응 못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이가 거기에서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새로운 환경에서 더군다나 작은 곳에 있다가 큰 곳으로 갔을 때 아이가 잘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참여자 10 & 참여자 11)

또래관계에 대한 걱정. 아동기는 사회성 발달 및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시기로 부모들은 자녀의 또래관계를 걱정하고 있었다.

"저는 마찬가지로 요즘 코로나가 장기화 되서 친구들하고 의사소통, 왜 이를테면 오타쿠 같은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런 게 좀 걱정이죠."(참여자 3), "제가 생각하는 약간 걱정이 되는 거는 교우관계? 대인관계나 이런 쪽으로 잘 되지 않을까?(중략) 아이가 혼자만 아는 게 조금 있어요.", "얘들이 행복하게 공감하면서 친구들이나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지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참여자 12)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걱정

자녀와 상호작용에서 경험하는 염려. 부모들은 자녀와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친밀한 정서적 유대관계와 자녀가 부모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가부장적 조건으로 인한 갈등과 걱정을 경험하였다.

"이게 잘 얘기하다가 그래도 얘들이 계속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소리를 크게 막 지르면서 혼을 낼 때가 아이들이 조금은 듣는 듯 보이는데 그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애들이 그 시기를 모면하려고 그럴 때"(참여자 6), "약간 좀 크게 큰 목소리로 혼을 내거나 하면 거부반응이 걱정이죠. 말로 하면 잔소리 같고 큰 목소리로 하면 애들이 주눅이 들고 그러니까."(참여자 1)

환경요인

경제적 부분에 대한 염려

소득과 지출에 대한 걱정. 부모들은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적인 부담과 염려를 경험하였으며 예상되는 전반적인 양육비와 이에 대한 경제적 걱정이 있었다.

"제가 이제 뭐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경제적인 활동을 잘 해서 지원을 잘 해 줄 수 있을까? 일단 저 관련해서 걱정은 그거고요"(참여자 5), "경제 활동의 침체, 사회 활동의 둔화, 고용 불안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한 요소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걱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경기 침체 및 부모의 고용불안이 걱정이죠."(참여자 9)

지지체계로 인한 걱정

www.kci.go.kr

양육지식 및 정보 부족으로 인한 염려. 한국의 경쟁구조의 입시문화로 인하여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지식 및 정보가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었다.

> "불안하기도 하고 생각이 좀 많아지기도 하고 좀 고민도 많이 되고 많이 얘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요. 주로 또래 엄마들이나 우리 남편이나 양육에 대한 고민을 많이 얘기 하게 되는 거 같아요.", "서적을 좀 본다던지 인터넷 검색 같은 거, 엄마들 카페나 아니면 교육에 관련된 인터넷 검색을 해서 정보를 얻기도 하고 해요."(참여자 13), "무지하니깐 아이에 대한 걱정 같은 거(생략)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그거를 해소 하려고 쉽게 찾을 수 검색할 수 있는 게 인터넷 검색이나 아니면 TV 시청에서 아이 관련 프로그램을 하니까 그런 거에서 많이 이제 정보를 얻는 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방법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고."(참여자 12)

양육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 부족. 한국은 정착된 핵가족화로 인하여 자녀 양육에서 필요한 부모역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와 도움 및 자원의 부족 경험하였고 지속적인 도움의 필요성과 지지체계 부족을 경험하고 있었다.

> "당장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대부분 한 쪽이 일을 포기하거나 아이를 데리고 가거나 눈치가 보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요즘 더 많아진 것 같아요."(참여자 11), "(친인척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주변에서 부모역할을 도와주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덜 걱정하고 불안할 것 같아요."(참여자 12)

자녀 양육에 대한 배우자와의 갈등. 부모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공동으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흐름에 따라 부부가 함께 자녀 양육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자녀 양육을 협력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주어진 일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거를 바라거든요. 스스로 독립적으로, 와이프 입장은 아무래도 모성본능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는 거 같아요."(참여자 5), "제가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도와주고(중략) 그런데 이제 아이 아빠는 자기 스스로 하게 그러면 나중에 되서 자기가 하려고 해도 못 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참여자 6)

자녀 돌봄에 대한 걱정

돌봄 공백. 부모들은 유아기보다 하교시간이 앞당겨져 돌봄의 공백이 생겼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유발된 자녀 돌봄에 대한 걱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 "지금은 학교도 안 가고. 밖에도 나갈 수가 없고.(중략) 환경적인 요인이 이게 불안의 요즘 가장 큰 요인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참여자 1),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부활동이 금지되어 있

www.kci.go.kr

고, 학교도 못 가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는 거 같아요. 저희나 아이들이 나 지금은 최근에 불안 요소인 것 같아요."(참여자 2), "지금은 일단 시대가 시기가 좀 그런 코로나나 그런 거 때문에 외부 활동이 좀 코로나로 돌봄에 공백이 자꾸 생겨도 당장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수 없어서"(참여자 10)

돌봄에 대한 신뢰부족. 부모들은 학교폭력 및 학교 내외 안전사고, 교육기관 및 돌봄 기관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었다.

"교육기관에서도 사건사고가 많아서 믿고 맡길 수 없잖아요. 요즘 특히, 어쩔 수 없이 맡겨도 항상 걱정되죠. 하도 요즘 계속 아동학대니, 학교폭력이니 하니까 주변에 아이를 믿고 맡길 사람이 없어요."(참여자 10)

논 의

이 연구는 부모양육불안 경험에 대하여 Van Kaam의 PPM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요인을 살펴보면 "부모신념으로 인한 불안", "부모의 예기불안", "부모 역할에 대한 불안", "부모의 지나친 책임감", 4개의 범주에서 13개 하위범주와 45개 주제가 도출되었다. 부모들은 한국 사회 맥락 안에서 가족 집단주의와 부모다움이라는 부모담론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융합-동일시라는 심정관계를 통해 자녀의 심정이 부모의 심정으로 경험되었고 이는 부모의 원 가족으로부터 경험되었던 하나의 양육방식으로 전통적 한국 양육문화가 반영되어 있었다(권용은, 김의철, 2004; 최상진, 2011). 한국은 수많은 전쟁과 식민지, 근대화, IMF 경제위기 등 다양한 역사적 위기를 경험하면서 자녀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희생적 이미지와 헌신적 사랑에 대한 행위성을 자녀걱정으로 환원시켜왔다(김희경, 2019;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 자녀 걱정에 대한 당위성은 한국의 부모다움 맥락 안에서 부모의 도리로 여겨져 왔으며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담론의 영향도 반영되어 있다(신송이, 2016; 홍지아, 2014). 둘째, 부모들은 자신의 불안으로 인하여 양육불안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실제 일어나지 않은 양육 상황에 대하여 걱정하고 불안전성에 대한 염려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개인의 불안은 지나친 걱정에서 비롯되며 동일한 상황에도 위험을 더 크게 인지함에 따라 정서 반응과 안전-회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Kyuichi, Keiko & Kaneo, 2015). 셋째, 부모들은 학부모 역할, 참여 및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능감 부족으로 인한 걱정, 비난에 대한 두려움, 양육부담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자녀의 학교 적응, 학습지도, 일상생활지도, 인성 및 행동지도, 문화적 경험제공, 학부모 역할 및 참여 등 다양한 역할이 요구된다(신수희, 2019; 이선희, 도현심, 2014; Pass et al., 2017). 부모들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모 역할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는 자녀와 관련된 모든 것을 부모의 탓으로 돌리거나 평가하는 한국 사회의 풍토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신송이, 2016; 홍지아, 2014). 넷째,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지나친 책임감을 경험하고 있었고

www.kci.go.kr

이는 자녀를 엄격히 통제해야 된다는 생각, 자녀에 대한 책임감,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집념, 훈육에 대한 염려로 경험되고 있었다. 부모들의 지나친 책임감은 자녀를 바르게 키워야 한다는 명제에 가려진 양육불안으로 한국의 가족 중심주의 체계 안에서 부모 권위에 자녀가 복종해야 한다거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거나, 부모가 훈육을 잘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체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박영신 등, 2002; 최상진, 2011).

자녀요인을 살펴보면 “자녀의 발달 및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기대감”, “자녀의 행동염려”,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걱정” 4개의 범주에서 14개 하위범주와 46개 주제가 도출되었다. 첫째, 자녀의 발달 및 건강에 대한 염려는 아동기의 발달과업과 자녀의 성장 및 발달에 대한 걱정과 관련되어 있었다. 아동기는 지적 능력의 발달과 빠른 신체적 성장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며 자녀가 소속된 교육기관, 또래관계 및 사회적 환경을 통해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이 촉진된다(이선희, 도현심, 2014). 부모들은 또래에 비해 성장이 늦지 않은지, 발달 상 문제가 없는지, 현재 자녀의 건강 여부와 상관없이 걱정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었다. 둘째, 자녀에 대한 기대감은 한국 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성취에 대한 문화적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었다(박영신, 김의철, 2008; 박영신 등, 2002). 한국 부모들에게 자녀의 공교육이 시작되는 학령기는 다른 시기보다 자녀의 인지발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시기이다(양난미, 이은경, 2008; 신수희, 2019). 그리고 한국에서는 자녀의 학업성취와 학업성과가 부모의 역할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 부모들이 자녀들의 학업성취를 자신의 성공경험으로 여기는 문화적 특성과도 관련되어 있다(금경희, 2018; 박영신 등, 2002). 특히,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한국 사회의 경쟁, 사회 격차, 학업경쟁이 반영되어 현재 당면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였고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 불일치에서 비롯된 양육불안을 경험하고 있었다. 셋째, 한국사회에서 중요시 되는 인성으로 인하여 부모들은 자녀의 행동을 염려하였다(김은설, 최혜선, 2008; 이원영, 1998). 이는 한국사회에서 중요시 되는 바른 인성, 사회적 규범, 집단주의의 맥락에서도 일치된다(박영신, 김의철, 2008; 최상진, 2011). 부모들은 자녀가 사회문화적으로 일탈된 행동을 할까봐 걱정하였으며 자녀의 인성에 대한 걱정, 교육기관 적응에 대한 걱정, 또래관계에 대한 걱정, 특히, 교사나 타인이 자녀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환경요인을 살펴보면 “경제적 부분에 대한 염려”, “지지체계로 인한 걱정”, “자녀 돌봄에 대한 걱정”, 3개의 범주에서 6개 하위범주와 14개 주제가 도출되었다. 첫째, 한국은 입시위주의 교육체계로 인하여 사교육을 시작하는 연령이 학령기로 낮아짐에 따라 자녀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전반적인 양육비용과 교육비용이 크다(이소영 외, 2018; 조찬희, 김교헌, 이형용, 2021). 부모들은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 양육비, 교육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예상되는 전반적인 경제적 걱정, 직장생활에 대한 불안정감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부담과 염려를 경험하고 있었다. 둘째, 한국은 정착된 핵가족화로 혼자서 자녀 양육을 감당하는 부모가 증가하였고 부, 모가 공동으로 양육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변화 과도기에 있으나 부모역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 도움

www.kci.go.kr

및 자원은 부족한 실정이다(금경희, 2018; 김은설, 최혜선, 2008; 노성숙 등, 2012). 이러한 한국의 양육환경으로 인하여 부모들은 양육지식 및 정보 부족, 양육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 부족, 자녀 양육에 대한 배우자와의 갈등, 부모들은 부모역할을 학습할 수 있는 지지체계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었고 양육 및 자녀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도움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었다. 셋째, 아동기는 유아기보다 하교시간이 앞당겨져 돌봄의 공백이 생긴다. 그리고 최근 발병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된 가정학습은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야기하였다(장진희, 2021; Syazwani, Iylia, Hazhari & Nurul, 2020).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불안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를 제공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동기의 발달적 변화에 따라 부모들은 자녀의 신체, 인지, 정서, 사회성 등 중요한 발달과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걱정하였다.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학업, 행동, 사회성 등을 평가를 받는 아동기 자녀 발달 특성이 관련되어 있어 선행연구와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신수희, 2019). 둘째, 경험적 연구를 통해 한국의 문화적 영향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의 부모다움에는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부모상이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의 산업화와 입시문화로 인하여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교육경쟁으로 인한 불안과 안전-회피 행동으로 자녀를 통제하고 과보호 한다(박영신 등, 2002; 신수희, 2019). 한국 문화적 양육특성으로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열과 기대감, 지나친 책임감에서 비롯된 양육불안을 경험하였으며 문화적 특성으로 다른 나라 보다 양육불안이 높았던 선행연구와도 같은 맥락이다(공병호, 백승학, 2017; 최경희, 2001; 최순자 외, 2006). 셋째, 양적 연구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모양육불안을 분석함으로써 부모양육불안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를 제공 하였으며 부모, 자녀, 환경요인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양육불안을 부모, 자녀, 환경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예방적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부모상담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양육 문제에 대하여 근거 기반 양육정책에 실제적인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가 지닌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의 표집과정에서 부모의 거주지역이 편중되었고 자녀의 학년이 1~2학년과 6학년으로 다소 편향되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안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참여자의 맞벌이 유, 무에 따른 영향 및 자녀의 수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선행지식과 주관적 편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반복적, 검증 연구를 제안한다.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들은 양육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부모양육불안은 부모의 정신건강 및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한국문화를 반영한 부모양육불안 척도가 부재한 실정이다. 향후 불안의 다차원적 접근에서 자녀 발달 단

www.kci.go.kr

계 변화와 함께 수행하는 부모역할, 아동기 자녀의 양육 특성, 교육환경에서 야기될 수 있는 환경적 요인, 한국 문화적 특성을 포함하여 부모양육불안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양육불안이라는 개념 안에서 부모의 사고, 감정, 행동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공병호, 백승학 (2017). 피양육경험이 양육불안과 부모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2(1), 87-105.

권용은, 김의철 (2004). 자녀가치와 출산율. 아동교육, 13(1), 211-226.

금경희 (2018). 어머니의 학습관여행동 척도 개발. 상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선미, 김정민 (2020).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SNS상의 사회비교가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38(1), 93-109.

김영천 (2012). 질적연구방법론 1: Bricoleur 2판. 경기도: 아카데미프레스.

김은설, 최혜선 (2008). 한국인의 자녀 양육관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김희경 (2019). 할마쇼크: 한국 가족주의의 그림자와 할머니-모성의 사회문화적 구성. 한국문화인류학, 52(2), 101-143.

노성숙, 한영주, 유성경 (2012). 한국에서 '워킹맘'으로 살아가기: 직장인엄마의 다중역할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2), 365-395.

박영신, 김의철 (2008). 한국 사회와 교육적 성취.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223-253.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 IMF 시대 이후 한국 학생과 성인의 성공에 대한 의식. 한국심리학회: 문화 및 사회문제, 8(1), 103-139.

신송이 (2016). 모성 이데올로기로 인한 양육 초기 여성의 어려움. 연세상담코칭연구, 6, 57-80.

신수희 (2019). 유아기 자녀의 초등학교 전이를 경험하는 어머니의 양육불안 척도 개발 연구. 아동과 권리, 23(1), 87-109.

아동돌봄 지원법 (202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양난미, 이은경 (2008). 초등학생의 진로포부에 대한 부모학습관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55-472.

엄연용, 송원영 (2021).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양육불안과 양육죄책감의 매개효과검증. 인문사회 21, 12(3), 1629-1644.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2).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유용흠, 표석환, 김지아, 유인지, 이호용 (2021). 2020 학교안전 실태조사. 교육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선희, 도현심 (2014). 학령 초기 자녀의 부모용 양육행동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아동학회, 35(6), 111-133.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kci.go.kr

이원영 (1998). 한국인의 심리에 비추어 본 양육태도. 한국교육문제연구, 13, 1-18.

이정윤, 이경아 (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61-276.

장진희 (2021).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과 여성노동위기 대응과제. 노동N이슈, 2021(8), 1-12.

정계숙 (2019).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과 양육불안이 분노 표현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18(1), 179-206.

정세진, 신나리 (2018). 어머니 양육불안과 아버지 양육참여도가 유아기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녀 기질 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인간발달학회, 25(4), 155-174.

정옥분 (2018).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조찬희, 김교헌, 이형용 (2021). 부모수준과 가족관계가 부모효능감과 양육불안감을 매개로 초등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식경영연구, 22(2), 167-187.

최경희 (2001). 한・일의 육아불안 및 육아스트레스에 최근 연구동향. 유아교육학논집, 5(2), 207-226.

최상진 (2011). 한국인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최순자, 深谷昌志, 이광형 (2006). 육아불안 구조의 국제비교: 한국・일본・대만 어머니의 자녀양육 의식을 중심으로.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1(1), 163-176.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21). 코로나19로 인한 노동환경 및 돌봄실태. 서울: 한국노총중앙연구원.

홍지아 (2014). 한국모성담론의 역사성. 현상과 인식, 38(1/2), 205-228.

Abidin,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21*(4), 407-412.

Anderson, J., & Eppard, J. (1998). Van kaam's method revisited. *Qualitative Health Research, 8*(3), 399-403.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Chase-Lansdale, P. L., & Pittman, L. D. (2002). Welfare reform and parenting: Reasonable expectations. *The Future of Children, 12*(1), 167-185.

Clark, D. A., & Beck, A. T. (2010). *Cognitive therapy of anxiety disorders.* NY: Guilford Press.

Eri, O., Toshiyuki, O., Yuka, A., & Zentaro, Y. (2019). National campaign to promote maternal and child health in 21st-century japan-healthy parents and children 21. *保健医療科學 68*(1), 2-7.

Gar, N. S., & Hudson, J. L. (2009). The association between maternal anxiety and treatment outcome for childhood anxiety disorders. *Behaviour Change-Bundoora Then Bowen Hills, 26*(1), 1-15.

Hiroki, M., John, I. T., Shiyu, A., Nao, T., & Seiichi, S. (2012). Maternal childrearing anxiety reflects childrearing burden and quality of life. *Pediatrics International, 54,* 504-509.

Kyuichi, M., Keiko, M., & Kaneo, N. (2015). Understanding child-rearing anxiety of mothers through a metacognitive therapy model. *不安症研究, 7*(1), 83-91.

Makino, K. (1982). Life of mothers with infants and child-rearing anxiety. *家庭教育研究所紀要, 3,* 34-56.

www.kci.go.kr

Mikolajczak, M., Raes, M. E., Avalosse, H., & Roskam, I. (2018). Exhausted parents: Sociodemographic, child-related, parent-related, parenting and family-functioning correlates of parental burnout.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7*(2), 602-614.

Mishina, H., Takayama, J. I., Aizawa, S., Tsuchida N., & Sugama, S. (2012). Maternal childrearing anxiety reflects childrearing burden and quality of life. *Pediatrics International, 54,* 504-509.

Mousavi, S. F. (2020). The burnout and exhaustion due to parental responsibilities the role of parent-child demographic variables, *Middle Eastern Jounal of Disability Studies, 9,* 123-133.

Nejra, V. Z., Maria, T., & Kari, T. (2018). Mothers and fathers' worry and over-control-one step closer to understanding early adolescent social anxiety.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9,* 917-927.

Pass, L., Mastroyannopoulou, K., Coker, S., Murray, L., & Dodd, H. (2017). Verbal information transfer in real-life-when mothers worry about their child starting school.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6*(8), 2324-2334.

Roskam, I., Aguiar, J., Akgun, E., Arikan, G., Artavia, M., Avalosse, H., & Mikolajczak, M. (2021). Parental burnout around the globe: A 42-country study. *Affective Science, 2,* 58-79.

Stassart, C., Dardenne, B., & Etienne, A. M. (2017). The role of parental anxiety sensitivity and learning experiences in children's anxiety sensitivity. *Th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5*(3), 359-375.

Syazwani, A. M., Iylia, M., Hazhari, I., & Nurul, I. Y. (2020). Working parents and emotionally parental burnout during malaysia movement control order(Mco). *European Journal of Molecular & Clinical Medicine, 7*(2), 4930-4953.

Tsukiko, W., & Tanji, H. (2004). Factors affecting maternal anxiety of mothers with 4month-old-lnfants. *Journal of Jap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6*(2), 47-54.

Yoshida, H., Yamanaka, T., Khono, G., Ota, Y., Nakamura, T., Yamaguchi, K., & Ushijimas, H. (1998). Differences in anxiety variables of mothers rearing firstborn infants: A pilot study of the maternal anxiety screening scale. *International Congress Series-Amsterdam-Excerpta Medica Then Elsevier Science, 1174,* 193-202.

원 고 접 수 일 : 2022. 06. 08
수정원고접수일 : 2022. 07. 21
게 재 결 정 일 : 2022. 08. 23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2, Vol. 34, No. 4, 1229-1251

A Qualitative Study of Parenting Anxiety Experienced by Parents with Primary School-Aged Children

Yunyong Eom Konyang University / Adjunct Professor

Wonyoung Song Konyang University / Professor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xperiences of parenting anxiety among parents raising primary school-aged children. To this en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3 parents with children aged 6 to 12. Data were analyzed using Van Kaam's Psycho-Phenomenological analysis method. As a result, 105 topics, 33 subcategories and 11 categories around three factors (parent, child, environment) were derived from 247 meaningful statements. The parent factor categories included "anxiety due to parental beliefs," "parent anticipatory anxiety," "parent role anxiety," and "excessive parental responsibility." The child factor categories were "concerns about their children's development and health," "expectations for their children," "concerns about their behavior," and "concerns about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children." Finally, the environment factors were "economic environmental insecurity," "support environmental anxiety," and "worry about child care." The study's findings confirmed the experience of parenting anxiety in rearing primary school-aged children. On that basis, basic data for parenting anxiety research and intervention were provided.

Key words : childhood children, parenting anxiety, qualitative study, phenomenological, Van Kaam's PPM

www.kci.go.kr